내가 만난 순리 치유

강 상 빈(박사, 순리치유학, 한누리생협 이사장)

들어가는 말

1989년 11월 어느 날 감당 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일일 단식을 하면서 내 인생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동안 자기 잘난 맛에 도취된 교만한 생활을 하다가 나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하여야하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숙고하게 되었다. 그 결과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고교시절 청소년적십자(JRC:Junior Red Cross) 농촌봉사활동 장면들을 회상하면서, 생명의 근원인 "농촌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는 구호를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하며, 농촌에 대한 교육 참여와 생명농업에 대한 서적들을 읽기 시작하였다. 근 10여년의 각종 영농교육 이수와 농촌현장을 체험하면서 1998년 10월 『돌아오는 복지농촌 참여하는 도시인들』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모 일간지와 TV방송과 라디오 방송에 책 내용이 소개되면서 기업인이 농촌생명살리기운동에 발 벗고 나섰다는 기사가 나온 후, 나는 새롭게 내 자신이 이중인격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말과 혀와 글로써만 생명살리기운동을 하는 실천이 없는 허공에 머물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실천이 없는 이론은 헛수고임을 깨닫고 도시인들이 농촌복지에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1999년 3월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는 길은 오직 유기농업뿐 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충남 서산에 유기농장인 '한누리농장'을 개척하였다. 그 지역농민들에게도 친환경유기농업을 하도록 권면하면서, "생산자는 정직으로, 소비자는 믿음으로"라는 구호아래 2000년 3월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지역에 '한누리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유기농매장을 열면서 '친환경유기농직거래소비운동'을 전개하였다. 1,0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유기농 건강먹거리 직거래소비운동을 하는 가운데 올바른 음식 섭취가 건강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소비자에게는 생명력있는 먹거리로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생산자에게는 유기농산물 생산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2005년 3월에는 '건강120 아카데미'를 창립하여 '올바른 식생활'운동을 통하여 '로하스'(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지도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 나 개인만의 이기적인 웰빙 차원을 넘어 이웃공동체와 자연과 환경과 생태계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 웰빙, 지속가능한 건강한 세상(LOHAS) 만들기를 추진하게 되었다.

건강120아카데미에서는 건강 수칙 10가지를 정하고 자연수명인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12088234'를 목표로 생명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아래와 같이 '건강지키기 10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①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시기(피톤치드, 음이온, 원적외선)

② 좋은 물 많이 마시기 (알칼리 미네랄 환원수, 지장수, 육각수)

③ 5백 식품 (정제된 흰 쌀밥, 흰 밀가루 음식, 흰 설탕, 흰 화학소금, 흰 조미료) 먹지 않기. 발아현미잡곡, 통곡식품, 통밀가루, 천연미네랄설탕(찬카카), 미네랄소금(안데스핑크소금) 섭취하기

④ 뇌세포 파괴하는 5가지 줄이기(니코친, 알콜, 카페인, 전자파, 마약류)

⑤ 인스턴트식품,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각종 화학첨가물, 성장호르몬, 항생제, 농약, 화학비료와 멀리하기. 디톡스(detoxification) : 장(腸) 청소 월 1회 실시. 유기농자연식품, 슬로우 푸드, 제철에 나는 계절식, 최소 마일리지 푸드 선호하기

⑥ 친환경유기농직거래 소비운동에 참여, 농촌을 살리는 일에 힘쓰며, 균형있는 식단 실천하기(육류 12.5% 섭취하기, 생선과 곡류는 통째로 섭취하기, 신선 자연 채소 과일 섭취하기)

⑦ 미네랄과 효소식품 충분히 섭취하기(산야초 효소 매일 마시기, 미네랄소금 사용하기, 프로폴리스 섭취)

⑧ 충분한 수면과 휴식 취하기(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낮잠 자기)

⑨ 땀 흘리며 일하기, 즐거운 운동하기(숲속걷기, 스트레칭, 건강박수)

⑩ 선한사업에 힘쓰며 이웃에게 베풀며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 만들기.

위와 같은 10가지를 실천하는 가운데 병원에서 못 고치는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으며, 현대의학의 한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자연치유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무(저)비용 고효율 간편 속효 치유법인 순리치유가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옥미조 원장과의 만남

나는 1996년 일본 농촌연수 중에 순리원 옥미조 원장(순리치유 창안자)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순리원 문고를 통해 순리치유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수없이 보고 들었으며, 2013년 8월 순리치유사 전문과정 연수에 참여하였다. 2013년 10월 30일-11월 8일 10일간 옥미조 원장과 함께 일본여행을 하는 가운데, 나의 고질병인 무호흡 코골이 증세가 옥 선생님의 2차례의 간단한 처치(1분)로 완전히 해결되는 체험을 하였다. 그리고 계속된 일본 식사(효소와 미네랄이 없는 식단)로 인해 8일째 되는 날 오전에 명치부분에 고통이 있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전철 안에서 옥 선생님의 간단한

처치(손바닥 및 손가락 지압과 생수 한 잔)로 바로 시원한 상태가 되는 또 하나의 신통한 자연 치유 사건을 체험하였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간단했다. 이렇게 돈 안 들이고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다. 나는 순리치유의 오묘한 치유법을 터득하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순리치유법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지속가능한 건강한 로하스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말을 옥 원장님에게 하였다. 이에 옥 원장께서는 겸손히 순리치유학에 대한 비평을 해달라고 하셨다. 나는 어떻게 감히 순리치유학에 대해 비평하고 정리를 할 수 있겠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옥 원장은 순리치유학이 더욱 발전하려면 반드시 비평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기에, '보정순리치유원론'을 2번 읽고 각장 마다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순리치유 연구를 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그러면서 순리치유야 말로 무비용 고효율 건강의료경제 치유법으로 경제성장과 건강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귀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나는 생명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건강120 건강수칙' 중 특히 7번째 '균형있는 미네랄 섭취와 충분한 효소(enzyme)섭취하기'로 병 안 걸리고 사는 지혜를 터득하고 실천함으로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자연치유의 기적의 기쁨을 얻는 모습을 수 없이 보았다.

내가 변화되고 다양한 자연치유건강법을 알고 실천하여, 나 자신이 남들보다 젊게 보이며, '12088234'를 홍보 할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의료비 부담 없는 매우 쉬운 자연건강비법을 많은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데, 주변에는 모두들 똑똑한 사람들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반성과 노력을 하지 않고, 머리로만 쉽게 건강하려는 부류가 대다수이다. 이들은 다양한 약봉지를 가지고 다니며 자기 자신의 건강을 병원과 약에만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자기 건강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잘못된 식생활습관을 반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으로 변화되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

터인데? 왜들 그렇게 고집불통이며 무지한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건강정보가 수록된 책을 선택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최근 '저비용 고효율'의 '속효가 있는 간편한 자연 순리치유법'을 소개하는 '보정순리치유원론'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는데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이야 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참으로 유익한 건강 길라잡이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앞으로 순리치유법이 현대의학계의 반성과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귀중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순리치유법의 3가지 법칙은 첫째, 모든 질병은 스스로 낫고자 하여 상생상극하여 자생력을 발휘하고 있다. 둘째, 모든 질병은 깊어 갈수록 전이되어 더 강하게 치유력의 발휘를 요한다. 셋째, 모든 질병은 통증으로 기혈을 열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병이 병을 낫게 한다"는 기본적인 대원칙으로 왜 병이 오는지 원인 여섯 가지를 제거하는 자연 순리치유법이다.

순리치유법에서는 각 환자가 지키고 실천해야하는 것(식사, 노동, 절제, 자연, 전자파, 잠, 기쁨의 생활실천)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 순리식사법은 ① 계절식 ② 단순식 ③ 전체식 ④ 무공해식 ⑤ 순리식을 실천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제철 계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흔한 식품을 먹는 것이라든지, 음식물 전체를 버리지 않고 다 먹는 다든지, 자연식품을 먹는다든지, 지나친 요리를 안 하기 등의 순리식사법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순리치유법의 확산을 통하여 자연과 환경이 살아나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가 없는 아름다운 로하스세상-로캐트(LOCAT)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순리치유법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순리치유법의 태동(history of reasonable natural healing, therapy)

초등학교 교사로 글짓기와 독서지도자로 30세에 철탑산업훈장을 타고,

새마을 수기 공모 최우수자에 당선되어 영화로 만들어지는 등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무리한 생활의 결과 간경화로 99.9% 사망진단을 받았으나 1976년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왜 병에 걸리게 되었으며 어떻게 병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독서와 의학연구를 한 열정적인 노력의 결실로 11년 만에 스스로 순리치유법을 터득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 주인공이 옥미조 선생이다. 그는 1987년 순리원을 창립하고 병원에서 포기한 절망적인 불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신유의 은사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무료 봉사로 수십만 명의 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을 기적적으로 살려내신 분이다. 노벨의학상보다 수백 배 더 큰상을 받을 실 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1996년 일본 농촌선교세미나 연수 시 순리원 옥미조 원장을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 12시간의 순리치유 기본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후 순리원의 평생회원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순리원 문고를 받아 읽고 있다. 2013년 8월에는 3박 4일간 순리치유 심화과정 최고연수과정을 이수하였으며, 2013년 10월말부터 10일간 옥미조 원장과 단 둘이서 순리치유학 전수 차 일본 북쪽 삿포로부터 남단 후쿠오까 지역까지 10여 개 도시를 여행한바 있다. 여행 첫날 밤 호텔방에서 함께 숙박하게 되자 필자의 고질병인 무호흡 코골이 중증병이 발각되어, 바로 다음날 옥 원장님의 1-2분의 치료로 완치되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였다.

그 후 2014년 1월 13-15일 2박 3일간 순리치유 최고과정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순리치유가 돈들이지 않고(no expense), 아주 쉽고(very easy), 속효 치유법(immediate effect healing)으로 우리 인류의 평화와 행복과 건강을 지켜주는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나는 1989년부터 “농촌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는 구호를 실천하기 위해, 농촌살리기 운동, 유기농직거래소비운동, 건강120아카데미운영, 생명운동, 생협운동, 유기농식당 운영 등을 하면서, 특별히 올바른 식생활습관과 무공해 환경 거주생활 실천을 강조하면서 로하스(LOHAS)세상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 배우고 연구한 자연치유법인 건강120아

카데미 건강달성목표(건강12088234)와 순리치유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통점과 탁월성과 간편성과 대중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순리치유는 무비용 고효율 건강법

인간은 누구나 오래 살기 원한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고 잘 싸고 잘 자는 생리 욕구를 충족시키며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누리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건강이 전제되지 않은 장수는 고통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중요한 건강의 시작은 바로 자연의 섭리[1]를 지키는 데에서 비롯된다. 모든 생물들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섭식행위를 하고 있으나 유독 인간만이 그 순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 탐욕 때문이다. 인간의 탐욕과 더불어 이기심과 고집이 자연과 환경을 계속 파괴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생활전기제품들의 출현, 상업적인 대량 생산 유통 판매 및 소비와 인스턴트식품, 화학첨가물, 농약 화학비료재배 농산물, 항생제축산물, 오백식품(5 white foods)[2] 등의 범람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밥상은 유해한 물질로 가득 차고 있으며, 몸은 계속 썩어가고 있다.

소크라테스[3]는 "많은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살지만 나는 살기 위해서

---

1) 자연의 섭리란 자연의 이치 즉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우주의 운행법칙을 말한다. 우주의 모든 에너지 기(生氣)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계속 순환하며 4계절이 있으며, 콩을 심으면 콩을 수확할 수 있듯이 건강을 심으면 건강이 돌아오고, 병을 심으면 병이 반듯이 돌아온다.

2) 오백식품(5 white foods) : white rice, white wheat, white salt, white sugar, white MSG) 100% 흰쌀밥, 흰밀가루 음식(빵, 과자, 국수, 만두, 피자, 라면 등), 흰소금(화학 정제염), 흰설탕(정제당), 흰조미료로 생명력이 없는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는 유해한 기본 식품을 말한다.

3) 고대 그리스 최고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청년시절 이오니아 학파의 자연 철학을 연구하다가 자연계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과 그 의미에 회의를 느끼고 인간 자신의 문제를 연구하게 됨. *You should eat to live; not live to eat.*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Badmen live that they may eat and drink, whereas goodmen eat and drink that they may live.* (악인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살고, 선인은 살기 위해 먹고

먹는다." 예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사람이 떡으로 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바로 인간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생명의 양식을 취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삶, 올바른 건강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소중한 자신의 몸을 해치는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큰 병에 걸리고 나서야 깨닫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건강은 건강 할 때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한다.

순리치유(順理治癒)[4]는 각종 성인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 특히 병원에서 포기한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에게 까지도 돈들이지 않고 건강을 쉽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무비용(저비용), 고효율 건강의료경제 치료법으로 세계 인류 복지 증진에 경이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태초의 자연치유법[5]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서양 중심의 현대의학이 엄청난 비용투자와 끊임없는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신약개발, 전염병 퇴치, 첨단의료진단 장비개발, 간편한 검진시스템 정착, 병원 현대화 및 대형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 오고 있지만,

---

마신다.

4) 순리치유(順理治癒 Reasonable Natural Healing))의 의미

① 順理 : 냇물(川)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람 몸이 머리(頁)에서 발끝까지 지극히 순리에 따른 밭(田에) 도랑(土)이 있듯이 옥(玉)에 있는 결의 무늬가 잘나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

② 治癒 : 황하의 범람하는 물(氵)을 잘 다루는(台) 것이 천자 정사의 기본이었던 데서 잉태한 아이를 잘 키우듯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병을 낫게 하는(癒) 것.

5) 자연치유는 인간과 우주, 자연, 환경을 유기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보고 총체적 전인적으로 치유하며 신이 인간을 위해 예비한 최선이자 최고의 치료 원리이다. 인간의 모든 질병은 전적으로 인간의 무지와 잘못된 생각에 원인이 있으며, 자연의 순환과 동행은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 환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치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저비용 고효율 경제 건강 요법이다, 유럽 및 미국에서는 현대의학의 한계로 인해 이미 제도권의료의 중요한 분야로 인정받고 자리매김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기득권의 반대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병원은 항상 만원으로 급증하는 환자들이 적기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치료비 부담도 크며, 오진율도 빈번하고, 치료율은 20%선에 머물고 있다.

환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의사와 환자와의 믿음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지 못 한 채,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며 약봉지를 항상 달고 다닌다. 그 이유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내려도 환자들은 처방대로 끝까지 실천하지 않음으로 병이 쉽게 낫지 않는 부분을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권면이나, 건강한 먹거리 섭취방법, 적당한 운동하기, 스트레스 줄이기, 절주, 절연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건강유지법을 설명해주면 알았다고 하면서 며칠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중한 병으로 병원을 다시 찾아가지만, 병원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치료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환자는 치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의사를 믿고 의사의 말에 순종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그러면 완치율이 올라간다.

한편, 환자들은 의사 말을 잘 듣지도 않으면서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찾는다. 그리고 바로 낫지 않으면 병원을 원망한다. "못 고친다, 오진이다, 과잉진료다, 이것저것 검진하는 데만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병원이 너무 상업적이 되었다"라는 비난도 많다.

의성 히포크라테스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며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고칠 수 없다"고 했다. 왜 환자들은 의사 말도 잘 듣지도 않고 음식으로 병을 고칠 생각도 하지 않고, 고비용 저효율의 병원만을 탓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 건강 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쉽고 완전한 방법이다. 자기 몸을 자기가 혹사시켜 못 고칠 병에 걸린 것이 왜 의사 탓 병원 탓인가? 바로 자기 탓 아닌가? 의사는 보조자에 불과하다.

건강120 아카데미(건강120882346))는 병의 원인은 바로 내 탓임을 깨닫게 하고 자연·순리치유법을 몸에 익혀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

6) 건강120882346 : 건강하게 120살까지 팔팔(88)하게 살다가 이틀(2) 아프고, 삼일(3)만에 죽자(4).

을 지키는 로하스(LOHAS)[7]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건강의료경제교육의 요람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건강을 지키는 자연순리건강을 강조한다.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건강120세까지의 목표를 향하여 함께 정진하여 로캐트(LOCAT)[8]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최근 웰-빙(well being)이라는 단어를 비롯 힐링(healing), 테라피(therapy), 로하스(LOHAS)등을 이용한 상업적인 건강의료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건강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건강하려면 우선 병원을 신뢰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믿고 병원의 지침을 잘 따라야 한다. 그러나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병원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들을 위해 손쉽고 속효치유, 무비용(저비용), 고효율 경제원리의 순리치유법의 일부를 소개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정순리치유원론』(옥미조 지음)[9]을 참조하기 바란다. 본 책을 통하여 순리치유를 접하고 놀라운 지혜를 깨닫고 돈 들이지 않고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건강의료경제를 실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로하스세상, 로캐트 세상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 農

---

7) LOH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 '나'만의 웰-빙 차원을 넘어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 나아가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건강한 삶을 말한다.

8) LOCAT(Lifestyle Of Circulation And Together) :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자연의 순환 섭리에 따라 자연, 환경, 이웃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면서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히 지키는 건강한 삶을 말한다.

9) 보정순리치유원론 : 『순리치유원론』을 더 깊게 설명한 순리치유법의 완전 결정판. 1987년 설립된 순리원 원장 옥미조 선생이 지은 책. 보통의 학서와는 다른 '순리미학'위에 세워진 아주 특별한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693p. 2012년